

성시신문 Magazine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성시화

십대지기의 소명을 받다

기획특집

감동을 주는 신앙인

슬며시

“가평우리마을”을 가다

문화에 빠지다

맛기행 김밥집에서 배우는 복음의 향기

영화이야기 킹 오브 킹스 KING OF KINGS

영화감상 김복동

건강 가을철 건강관리와 『동의보감』의 지혜

책속의 책 십일조의 복음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 신앙의 진단 키트

부부의 행복을 꾀뚫는 문학적 저널리즘의 도서 ‘행복지시등’

258

Autumn 2025



창간1998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Contents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성시화

03 십대지기의 소명을 받다 | 최상도 목사

기획특집

07 감동을 주는 신앙인 변춘자 전도사 | 이연희 목사

10 슬며시 | 이영규 목사

13 “가평우리마을”을 가다 | 박익수 집사

15 맛 기행 김밥집에서 배우는 복음의 향기 | 이관형 원장

17 영화이야기 킹 오브 킹스 KING OF KINGS | 김춘배 화백

19 명화감상 | 김복동

20 건강 가을철 건강관리와 『동의보감』의 지혜 | 이시형 원장

21 책 소개 책속의 책 | 박도준 목사



춘천성시화운동후원하기

신협 131-005-937566(춘천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운동본부 QR코드 후원참여에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참여



십대지기의 소명을 받다

최승호 소장(십대지기 교육연구소장) 편

취재/최상도 목사
(사암교회, 공동편집장)

청소년과 다음 세대를 향한 남다른 열정을 품고 있는 최승호 소장. 현재는 십대지기 교육연구소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그는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재원이다. 누구나 부러워할 화려한 경력을 지닌 그이지만, 지금은 청소년 사역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5년 전부터는 춘천으로 사역지를 옮겨 중앙감리교회 고등부 교사로 헌신하며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 특별한 여정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

▲ 최승호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영학과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언론계와 대기업 임원을 거치시는 등 열정적으로 살아오셨는데요. 그 여정을 돌아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늘 열심히 공부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를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온 것은 맞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까지 뜨겁게 붙잡았던 신앙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채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제 삶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새로운 길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 외적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오신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크고 깊은 위기를 경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40대 초반, 대기업 임원이라는 자리에 올랐을 땐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위 1%의 삶이었지요. 하지만 그 시기에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소천, 배우자와의 깊은 갈등, 인간관계의 미숙함 등이 겹치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결국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제 모습은, 성경 속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치 탕자가 쥐엄 열매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듯, 저도 술과 담배에 의지하며 힘겨운 시간을 견뎠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서울 온누리교회의 제자학교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제자학교의 훈련 프로그램에 깊이 빠져들었고, 1년 동안은 학생으로, 이후 2년은 풀타임 간사로 섬기며 삶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고, 매일 말씀을 묵상(QT)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성경을 통독하며 영적으로도 큰 도약을 경험했습니다. 이 두 가지 – 큐티와 성경 통독 – 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제 신앙의 뿌리입니다.

▲ 그러면 춘천에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어느 날부터인가, 가정 밖 청소년들의 삶에 눈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을 섬기는 사역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 철학으로 삼는 대안학교에서 사역했고, 이후 포천과 가평에서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춘천으로 사역의 범



위가 확장되어, 그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들과 함께한 사역의 현장에서는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지면상 구체적인 사례를 모두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위기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보면 겉모습과 달리 대부분 속은 따뜻하고 여린 아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자라온 환경이 그러하지 못했고, 인생의 멘토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들여 상담하고, 인격적인 친구가 되어줄 때, 아이들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런 회복의 순간은 아이들뿐 아니라 그들을 돕는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치유의 통로가 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춘천 중앙감리교회 고등부에서 ‘청소년 저널(Journal)’을 창간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써 내려가는 ‘인생 자서전’ 같은 작업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이만한 도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2년 말 기준으로, 춘천의 청소년 인구(15~19세)는 약 1만 3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 기독교 청소년의 비율이 약 10%라고 보면, 겨우 1300명 남짓입니다. 이 숫자를 보며 제 마음에 깊은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저 역시 한때는 영적으로 깨어지고 무너진 시기를 지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저를 통해, 깨어지고 무너진 청소년들이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신 평생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며, 십대지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천 크리스천 청소년을 하나로 연결해줄 아주 작은 플랫폼

ADD (A Dreamer's Diary)



ADD 컨셉 : 한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를 연결한다
춘천 크리스천 청소년 1인의 진솔한 인생/신앙 인터뷰
응원과 위로가 필요한 학생,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학생 주대상
너무 대단하거나 거창하지 않은 소소한 그러나 진실된 일기장
컨셉



매주(토) 오후 인스타(add_1618)카톡채널(add_1618) 공유
2025. 10월 18일 현재 130호 발행. 춘천지역 7개 교회 참여 중.
(사암성결교회 드림성결교회 하늘평안성결교회, 호두나무순복음
교회, 광염감리교회, 석사감리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각 교회별 목회자/사역자 추천을 원칙으로 학생 섭외 후 인터뷰
진행



발행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편집은 기존 편집팀 + 계속 모집중
현재 편집장은 신문기자 출신(집사), 글 편집-영상 PD(학생)도
참여 중
청소년 대상인 만큼 영상 (미니) 인터뷰도 준비중
관련 문의 편집장 최승호 (010 9929 0289)

은둔자를 예배자로, 소외된 영혼을 춤추는 예배자로 세우는 변춘자 전도사의 두 번째 이야기

이연희 목사
(아미교회, 성시신문 편집위원)

최근에도 장애인 부모들이 백여 명 모여 무릎을 꿇고 장애인 학교 설립을 간절히 청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 호에 이어, 지금도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며 섬기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변춘자 전도사의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



▲ 변춘자 전도사

1. 장애인 전문 사역자로 꽃피운 축복된 만남의 복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복 중 하나는 만남의 복이다. 변춘자 전도사는 부모님 때부터 소양성결교회를 다녔다. 교회 예배를 마친 후 오후에는 재활원과 재가 장애인들을 찾아가 울동하며 봉사하는 삶을 즐겨워했다. 교회 밖에서 성실하게 이어오던 장애인 봉사활동은, 출석하던 소양교회 공동체 속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부교역자의 아내이셨던 신영옥 사모님과 함께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고, 후에 장애인 부서 전담 사역자로 섬기게 되었다.

1997년부터 시작한 소양교회의 장애인 사역이 2017년까지 이어졌다. 21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한 교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과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목회 철학과 인품을 지녔던 고(故) 이원호 목사와의 축복된 만남 덕분이었다. 고 이원호 목사께서는 변 전도사의 장애인 사역에 탁월한 섬김과 재능을 다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장애인 전문 사역자이자 장애인 인권 강사로 우뚝 설 수 있었다.

변 전도사는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성결교단 서울신학대학에서 공부했고, 신학 공부를 마친 후 장애인 부서 전담 전도사로 임명되었다. 목사님은 장애인 전담 사역이 활성화되고, 수준 높은 장애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당회실을 내어주는 등 장소를 비롯한 여러 한계를 초월하여 다양한 장애인 사역을 섬기도록 도와주셨다.

이러한 지원 아래, 발달 장애인 중심의 토요 주말학교, 재가 장애인 반찬 나눔 사역, 목욕 봉사,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반(기초, 중급, 회화) 운영, 재가 장애인 병원 동행 등 복잡하고 다양한 장애인 사역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었다. 고 이원호 목사의 모친이신 고(故) 김을수 권사께서는 장애

인 예배를 위해 서화전을 개최하기도 하여 일 천만원의 후원해 주셨다고 한다.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영적 지도자셨던 고 이원호 목사와의 만남은 변 전도사가 폭넓은 장애인 사역을 전문적으로 감당하고, 필요한 훈련과 실력을 겸비하는 축복의 발판이 되었다.

2. 장애인 사역의 진수를 펼치는 사랑교회와의 행복한 만남의 복

“장애인을 만나면 무장해제가 된다. 존재 자체로 대하게 되고, 존중만 필요한 대상이 바로 장애인이다”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변준자 전도사는 일반적으로 은퇴할 시기에 새로운 교회에 장애인 사역자로 초청받아 행복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12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춘천중앙감리교회 장애인 예배 ‘사랑교회’의 담임 전도사로 초청받은 것이다.

장애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사역을 기뻐하던 변 전도사는 새로운 사랑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돕고, 장애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한 일이 아니며, 복지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임을 전하고 있다.

수십 년간 몸소 체험하고 축적된 장애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사회와 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쏟아붓고 있으며, 마지막 인생 주기를 진정한 섬김과 예배 드림에 헌신하고 있다.





사랑교회에서 마음껏 기뻐 뛰며 찬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이 먼저 은혜받고 예배의 자리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라며, 변 전도사는 활짝 핀 나팔꽃처럼 웃으며 이야기했다. 은둔자들을 예배자로, 소외되었던 이들을 춤추는 예배자로 세우는 사랑교회가 장구한 세월 하나님 앞에 계속 드러지기를 바란다.

사랑교회는, 장애인을 사랑하여 평생 함께 한 변춘자 전도사에게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라고 한다. 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같은 삶의 축복이요, 그간의 섬김 사역에 대한 열매이자 결실이다.

20대부터 연약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삶과 생활은 그녀를 공인으로서 인정받는 진정한 전문인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외모로는 알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의 사랑을 주님이 드러내게 하신 이 장애인 사역이, 그녀의 생의 후반부에도 계속 이어지는 복이 되었다.

강원도 장애인 복지관 인권 강사, 장애인 시설의 인권 단장, 춘천중앙감리교회 사랑교회 장애인 사역자로 걸어가는 변춘자 전도사는 앞으로 좋은 후임자를 세우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일대일 양육을 통한 섬김이로 남은 생을 헌신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고 이원호 목사와의 만남, 그리고 사랑교회와의 만남은 우리 모두에게 만남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다.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장애인들의 사랑 섬김이인 변춘자 전도사의 사역과 삶이, 기도하고 기대하는 바대로 계속되길 바란다.

슬며시

이영규 목사
(신복성결교회, 성시신문 편집위원)

누가 선교지 어느 나라 어디를 한 달 정도 다녀왔다. 그곳에서 눈에 밝힌 일(빛바랜 체육관)을 전 해들었다. 돕고 싶어 하는 그의 착한 마음과 그 마음이 주는 버거운 무게가 느껴졌다. 오지랖이 넓 기 때문일까, 나도 그를 돕고 싶었다(고전 7:40). 결국 같은 마음을 가진 몇 사람이 한아름선교회 회원의 많은 후원을 받아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길을 나섰다.

개인적으로는 선교지 어디를 갔을 때와 이번 선교지의 방문에 우려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는 사 람들 사이의 소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게 개의치 않고 갔다. 눈에 밝힌다는 그분과 그곳에 다녀온 여러 사람들의 증거(“데메트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 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요삼 1:12), 그리고 맥락은 다르지만 판 단치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 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전 4:3-5) 그래도 혹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모호하게 그곳을 전한다.

가기 전 어떻게 도울지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일을 재차 확인했고, 선교지의 여러 상황도 그곳 의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 파악해 두었다. 그 지역은 예전에 대여섯 번은 다녀온 적이 있어 낯설지 않음에도 선교지에서의 물품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하루 온종일이 걸렸다. 그럼에도 다들 짜증을 내지 않았던 것은 일머리를 공유하였고, 시간 배분을 여유 있게 계획했으며,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 야 하는지 함께 갈 분들이 서로 익숙했기 때문이다. ^^ 하나님께 찬양을!

둘째 날, 우리는 그 체육관에서 600여 명의 학생들(전체는 1600명 정도이고, 고학년은 9시에 예 배당에서 300여 명이 예배를 드렸다는데 나머지는? 갑자기 궁금해진다. 패스하죠.)과 아침 8시에 예배를 드렸다. 그런 후에야 정돈하고 청소하며 청소하고 드디어 조금 예쁜 체육관으로 만드는 일 을 시작했다. 넉넉한 후원 덕분에 계획에 없던 표면과 밀칠 작업도 가능했다. 이는 페인트의 접착 력을 높이고, 도막의 내구성을 강화시키는 작업이다. 예전 건축 현장에서는 간혹 판지를 거는 사람

들 때문에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혼자 뇌피셜 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우린 그런 아는 척 없이 모두 하라는 대로 따라 순직하게 진행되었다.

우리가 체육관을 수리하는 기간에 그 지역 농구대회가 있었다. 대회 기간 중이라 체육관 사용이 더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분명 그랬다.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것은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토록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었을까? 이곳 선교사와 선수들을 대단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다. 새벽에 예배당을 꽉 채운 학생들을 보면 안다. 어제(8월 20일) 우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셋째 날, 같이 간 안수집사님은 여느 때와 같이 살머시 새벽기도를 다녀온다. 새벽기도를 마친 학생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운동하고, 만나는 우리를 축복한다. 이런 걸 어디서 배웠을까? 그들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일 것이다. 벌써부터 상쾌하다. 선교는 선교하는 자가 선교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7시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아침을 먹자마자 땀 흘리며 작업을 시작했다. 오늘은 정말 단순한 작업이라 조금의 인내심과 음악만 있으면 즐겁게 할 수 있다. 햇빛과 수분으로부터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상도라는 작업이다. 함께하는 목사님이 틀어 놓은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읽어주는 성경과 찬양이 이마에 흐르는 땀과 지친 마음을 다독인다. 다만, 제품에 표시된 정보와 판매자

의 말에 따른 계산이 실제와 다르고, 다른 필요한 것들이 있기도 해서, 여러 번 가게를 왔다 갔다 해야 했다.

그 정도의 번거로움은 일과를 마치고 받은 우리 돈 8,750원짜리 마사지(이곳저곳 찾다가 닫지 않은 곳이었다.)로 가벼이 넘길 수 있었다. 이쯤 되면 혹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 과일을 한 무더기 사와 먹으며(아 2:5; 엘 1:12), 주고받는 늦은 밤까지의 수다는 우리를 회복하고 묶는 끈이 되었다. 그런 안배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넷째 날, 국제 규격에 맞는 농구장, 배구장 라인을 그리는 날이다.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합과 같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3-4-5 기준 직각을 찾았다. 규격대로 재고, 철사와 비티가새로 7개의 원을 그리고 (궁금하죠?), 초크라인으로 줄을 띄우고, 마스킹테이프를 붙이고, 색칠하는 작업이

다. 그런 중에 우리 중 누가 센터의 중심이 틀린 것 같다고, 또 누가 이쪽 코트와 저쪽 코트가 일치선이 아닌 것 같다고 슬며시 지적해 다시 재고, 건축용 실을 띄어 맞추었다. 정교함은 리더가 아닌 서로가 함께함에서 나왔다. 드디어 우린 완성했다.

눈에 밝힌 부담이, 이제는 보기에 좋았다가 되었고, 우리는 돌아와 쉴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한아름 선교회는 선교사 파송식(조영춘, 이봉연)을 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평우리마을”을 가다

박익수 집사

(예담교회, 성시신문 편집위원)

환대(hospitality)의 기원을 <관광학 개론>에서는 고대 라틴어 ‘호스페스(hospes)’에서 찾는다. 이 호스페스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을 뜻한다고 한다. 하나는 성지 순례자나 여행자들이 하룻밤을 쉬어가는 숙박 장소였고, 다른 하나는 여행 중에 발생한 부상자나 환자들을 수용하여 수녀들이 직접 치료하는 요양소를 지칭했다.

18세기 중엽 이후부터 이 단어는 호스텔(저렴한 가격의 숙소로 대부분 공동침실과 샤워실, 주방 등을 이용객이 공동으로 사용함), 호텔, 호스피스(환자의 임종을 맞이하는 안식처), 호스피털(병원)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었으며, 현재는 이러한 서비스 사업을 총칭하여 환대산업(hospitality industry)이라고 부른다.

사회적 약자를 초청 환대하는 “가평우리마을”도 이러한 환대산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가평우리마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써달라며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한 “분당우리교회”의 한 권사님과, 2만 평의 땅을 선뜻 기부해 주신 같은 교회의 한 집사님 부부의 헌신으로 시작되었다. 나아가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강병근 명예교수님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전체 구조와 내부 시설을 재능기부로 설계하며 가시화되었다. 이처럼 마을은 분당우리교회 성도들과 세계 곳곳의 이름 모를 헌신자들의 헌금과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곳이다.



취재 당시 75세의 중증 시각 장애인 한영희 작가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능력으로 주 3회 이상 창작 작업을 왕성히 하고 있으며, 이곳의 장애인을 위한 상설 전시 갤러리에서 “우리라는 빛”을 주제로, 자신의 제자와 역시 장애인인 이다윗 씨와 함께 작품들을 공동 전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이와 같이 장애 예술가들에게 상설 전시 공간을 제공하는 일 외에도 근육 장애 청년들과 비장애인 청년들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해하며 성장하는 “너나들이” 단체나, 조이폴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는 다문화 음악캠프를 주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일도 자주 있는 일이다. 더불어 미자립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초청 환대하는 일도 거의 매주 열리고 있다.



이곳의 부대시설로는 드림하우스 1층에 갓 구운 신선한 빵과 향기로운 커피, 샌드위치, 음료 등을 즐길 수 있는 ‘우리카페’가 있는데, 신선한 재료로 조리되는 조식과 중식(돌솥 소불고기 비빔밥 한 상 등), 석식(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 외 편의점, 도서관, 채플실, 기도실 등이 있다. 일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은 타입별로 2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이고, 예약은 가평우리마을 웹사이트(<https://www.woorimaeul.org>)에서 가능하다.

나는 이 거룩한 공간에 머물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이곳을 나서며 미국 신학자 레티 러셀이 『교회는 환영이다』라는 저서에서 언급한 내용이 떠올랐다. ‘공정한 환대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문득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환영(歡迎)’이다.

“가평우리마을”은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는 말씀과, 신약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인자(人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묵묵히 일상으로 실천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김밥집에서 배우는 복음의 향기

이관형 원장
(춘천 자연유치원)



어릴 적 교회 근처에는 작은 김밥집이 하나 있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들러 김밥 한 줄씩 나눠 먹던 기억은 필자인 내게 따뜻한 공동체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허기진 배를 채우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웃음 짓게 하던 시간.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 오가던 일상의 제단이었다.

하지만 요즘, 그런 동네 김밥집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과 배달 앱의 등장까지. 이제 김밥은 더 이상 ‘가난한 이웃을 위한 값싸고 정직한 음식’이 아니라, 어느새 선택받은 메뉴로 바뀌고 말았다.

한편으로, 김밥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문득 한국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한때 교회는 지역 사회의 김밥집 같았다. 언제나 문이 열려 있었고,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었다. 교회 앞을 지나던 낯선 이들도 마음 편히 들어와 말씀을 듣고,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위로받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소박했지만 진심이 있었고, 작았지만 공동체가 살아 있었다.

그러나 점점 교회는 웅장한 건물이 되었고, 김밥집처럼 가까웠던 문턱은 높아졌다. 복잡한 프로그램과 시스템, 그리고 SNS 속의 세련된 이미지 속에서, 진짜 복음의 향기와 사람 냄새는 점점 희려져만 갔다. 마치 원조 김밥천국이 브랜드만 남긴 채 정작 김밥 맛은 사라진 것처럼 말이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기셨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부활 후 제자들과의 조반도, 모두 먹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복음은 성대한 설교보다 따뜻한 한 끼, 겸손한 나눔 속에서 더 진하게 전해진다. 예수님이 베푸신 떡과 물고기처럼, 김밥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그분의 사랑이 될 수 있다.

김밥집이 사라진 이유는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먹고자 하는 기다림과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었고, 함께 기다리며 앉아 나누던 시간 대신 우리는 빠르고 편한 길을 선택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지는 않은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손쉽고 빠른 ‘신앙의 결과물’만을 원하고 있진 않은지?

지금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김밥을 정성껏 말고 계신 분들이 있다. 큰 간판도 없고, 화려한 마케팅도 없지만, 누군가의 한 끼를 위해 정직한 손길을 멈추지 않는 그분들처럼, 우리도 다시 신앙의 자리에서 한 사람을 위한 기도, 한 마디의 위로, 한 끼의 밥상을 준비할 수 있다면 어떨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태복음 20:26)

그 섬김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소박한 김밥 한 줄처럼, 작은 정성과 꾸준한 사랑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씨앗이 된다.

오늘, 우리가 잊고 있던 그 동네 김밥집처럼, 교회가 다시 세상의 작은 따뜻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김밥집 사장님처럼, 진심을 다해 누군가의 하루를 감싸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한다.



킹 오브 킹스 KING OF KINGS

김춘배 화백
(성시신문 편집위원)

작년 이후 다시 시작했지만, 필자가 1998년 성시신문 창간호부터 맡아 온 꼭지는 바로 성시만평이었다. 성시만평을 한 7~8년 정도 했을 무렵, 강원대학교 미술과 후배인 서양화가 이관형 권사가 고맙게도 만평을 자원했다. 그래서 편집부에서 밀려나게 되나 싶었는데, 필자가 먼저 제안했는지 아니면 다른 위원이 권유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영화소개’ 코너로 가자고 결정되었다. 그 때부터 이어진 영화 소개,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소개했던 영화가 바로 <왕중왕>이었다. 간략히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영화사상 <왕중왕>은 두 편(1927년, 1961년 作)이 제작되었다. 세계의 전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죽음만큼 위대하며 사람들의 정신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없다. (중략) 세실 B. 드밀이 현대의 인류가 당면한 몰락위기에 처해 구할 길 없는 절망과 실의 속에서도 평화와 인간애를 되찾고자 다년의 준비 끝에 경건한 마음으로 이루어낸 최고의 성경 영화이다. (중략) 이후 1961년에 니콜라스 레이가 동명의 영화를 현대적 장비로 제작하였는데, 예수의 일생을 다시 그

대로 완벽하게 재현해 낸 기독교의 대서사시였다.



그런데 지난봄부터 영화계에 신선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다름 아닌 한국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였다. 제목상으로는 기존 ‘왕중왕’의 영어 원제목인 셈이다. 여타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마블, 디시 코믹스 영화와 첨단 기술을 동원한 야심작들, 심지어 할리우드에서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받은 한국 영화 <기생충>을 뛰어넘는 찬사를 받으며 폭발적인 관객 수를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게다가 예수님을 소재로 한국인 감독이 만든 영화라니,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며,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그 놀라운 흥분 속에 아직 국내 상영이 되지 않았을 무렵, 이관형 권사는 먼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본지 257호에서 자신이 맡은 코너 ‘맛집 이야



기'에서 디저트 삼아 간략하게나마 필자에 앞서 이 영화를 소개했을 정도였다.(공교롭게도 편집회의 무렵 개봉했는데, 정작 본인은 아직 보지 못했고 편집위원 중에서 필자가 제일 먼저 영화관으로 달려가서 보고 난 뒤였다.)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로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의 작가 찰스 디킨스가 쓴 '예수의 생애(The life of our Lord, 1934)'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장성호 감독은, 오랜 기도와 인내의 결실로 10년 만에 영화를 완성했다고 하면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고백했다. 이 영화는 이순신의 해전을 담은 영화 <한산>을 비롯해 수많은 영화에서 시각효과로 활동했던 장 감독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이다.

이 작품에는 셰익스피어 작품 영화로 유명한 케네스 브래너가 찰스 디킨스를, 오스카 아이삭이 예수 역을 맡았으며, '007시리즈'의 피어스 브로스넌이 본디오 빌라도로, 우마 서먼, <간디>의 벤 킹슬리, 포레스트 휘테커 등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했다. 국내 번역 더빙 역시 훌륭하게 나와서, 이병현이 찰스 디킨스 역을, 진선규가 예수님 역을, 차인표가 본디오 빌라도 목소리를 맡는 등 신앙심 깊은 배우들의 좋은 목소리 연기에 보는 사람마다 감동과 은혜를 체험했다고 간증할 정도로 반응이 참 엄청났다.

청각장애인인 필자로서는 자막으로만 감상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그 감동을 온전히 공유하지 못하는 점은 유감이다. 하지만 원작이 가진 깊은 신앙적 스토리텔링의 전개와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색채의 화면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다. 이 영화는 전세계 50개국에서 상영되며 북미 박스 오피스 2위라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영화는 찰스 디킨스가 낭독회 공연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아서왕의 엑스칼리버를 동경하는 개구쟁이 막내아들 월터가 말썽을 부려 공연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로 인해 아빠가 곤경에 빠지게 된다. 그 와중에 아내 캐서린은 우연히 발견한 원고로 둘을 화해시키려고 한다. 그 원고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것인데, 그리하여 아빠는 월터에게 진정한 왕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아버지의 실감 나는 이야기에 단숨에 빠져든 월터는 어느새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예수가 태어난 순간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부자가 실제로 시간여행을 하는 듯 2000년 전 예수와 한 공간에 머물면서 예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여정을 함께하는 구성으로 전개되어 관객들이 쉽게 예수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만든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통해 가족애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깊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한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의 영화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져 전 세계에 큰 간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작가 김복동

Salvation 2015-14

160×130cm
oil on canvas & wood

카라바조의 마지막 작품으로 추정되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1610, 125×130cm 로마 보르게제미술관)은 지금까지도 많은 해석이 이어지고 있는 작품이다. 그림 속 다윗의 얼굴과 골리앗의 얼굴은 카라바조 자신의 모습을 모델로 그린 것이다. 그림 속 다윗의 표정은 승리와 환희에 차 있기 보다는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고, 다윗의 손에 들려 축 늘어진 골리앗은 평생 자신의 천재성만을 믿고 교만에 찬 슬픈 자화상으로 그려졌다. 순수했던 다윗 역시 나이가 들고 세상을 겪으며 골리앗처럼 변해갈 것을 예감한 것일까.

그러나 끝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순수한 어린 소녀처럼...



가을철 건강관리와 『동의보감』의 지혜

이시형 원장(이시형 한의원)

가을은 여름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고 서늘한 기운이 자리 잡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큰 일교차와 건조해진 공기는 호흡기와 피부에 쉽게 영향을 미칩니다. 『동의보감』 「내경편(內景篇)」에서는 “秋氣肅殺(추기숙살) 肺氣應之(폐기응지) 肺主收斂(폐주수렴)”이라 하여, 가을은 폐가 왕성해지는 계절이며, 기운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수렴(收斂)의 기운을 따라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 건강관리의 핵심은 폐를 보호하고 건조함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을은 건조한 기운이 심하여 폐와 기관지가 상하기 쉽습니다. 『동의보감』은 “燥勝則肺病(조승즉폐병)”(조가 성하면 폐가 병든다)라 하여, 폐가 건조에 가장 민감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윤폐(潤肺) 작용이 있는 식품을 섭취하도록 권합니다. 배(梨)는 청폐윤조(淸肺潤燥), 즉 폐를 맑게 하고 건조함을 윤택하게 합니다. 도라지는 거담지해(祛痰止咳), 즉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멈추게 합니다. 꿀은 보중윤조(補中潤燥), 즉 속을 보하고 건조함을 윤택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오늘날에도 가을철 기침이나 기관지염에 효과적인 민간요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기운이 급격히 떨어지는 아침저녁으로는 체온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의보감』은 “秋宜養收(추의양수) 無擾夏氣(무요하기)”(가을에는 마땅히 기운을 거두어 저장하고, 여름의 습관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늦더위의 습관대로 옷차림을 가볍게 하거나 과로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적절한 산책이나 땀이 나지 않을 정도의 운동은 기혈 순환을 도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을의 정서는 슬픔과 연관됩니다. 『동의보감』은 “悲則氣消(비즉기소)”(슬프면 기가 소모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가을철 우울감과도 연결됩니다. 마음이 지나치게 수렴되면 폐의 기운을 상하게 하므로, 정신을 평온히 하고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6-18)고 하여, 정신적 균형이 건강의 근본임을 알려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에 권할 만한 차로는 『동의보감』에서 추천하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국화차(菊花茶)는 두통과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대추차(棗茶)는 기혈을 보충하며, 도라지차(桔梗茶)는 폐를 윤택하게 하여 기침을 예방합니다. 모두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건강을 돌보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자 영혼을 돌아보는 계절입니다. 『동의보감』의 지혜와 함께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는 말씀을 붙들며, 몸과 마음을 잘 지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속의 책

박도준 목사(하늘뜻이룸교회, 글 익는 마을 독서모임)

(글 익는 마을 : 예수교장로연합회 통합 소속 춘천지역 목회자 5명이 매달 1권씩 선정된 책을 읽고 발제하고 나누는 모임입니다)

“십일조의 복음”

구약학자인 김지찬 교수의 “십일조의 복음”은 교인들 사이에서 늘 시끄러운 십일조 문제를 성경의 관점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저자는 십일조를 그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현금”이나 “교회 돈 문제”로 보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납니다. 또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십일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모세 시대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적인 역할도 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겉으로만 십일조를 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그보다 공의, 자비,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십일조가 돈을 드리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고백임을 깨닫게 합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균형 잡힌 신앙 안내서입니다. 십일조에 대한 오해를 풀고, 현금의 진짜 의미를 알고 싶다면 꼭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 신앙의 진단 키트

차성진 목사의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는 겉보기엔 익숙하지만 속은 공허한 ‘습관적 신앙’을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모태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정체성 혼란과 신앙적 자기 확신의 부재라는 핵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이 책의 강점은 부제인 ‘내 신앙의 진단 키트’처럼, 독자 스스로 신앙의 깊이를 점검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질문들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나의 구원은 확신에 기초하는가?”와 같은 묵직한 질문들을 통해, 형식적인 믿음을 성숙하고 능동적인 개인의 신앙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방향하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잊었던 영적 질문들을 다시 꺼내고 진정한 믿음의 각성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귀한 안내서입니다.



부부의 행복을 꿰뚫는 문학적 저널리즘의 도서 ‘행복지시등’

“한순간에 증폭하는 부부 갈등의 폭발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행복지시등〉은 신혼부터 중년, 노년까지 부부의 애환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정감 있는 행복 일대기를 그려낸 문학적 저널리즘의 수필집이다. 발간도서의 특징은 감성과 이성의 행복 교집합이다. 문학의 감수성과 저널리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독자의 공감을 끌어내고자 했다. 총 7장에 걸쳐 37편의 에세이를 엮어냈다. 김작가는 “부부의 삶은 깊은 유대감과 삶의 균형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친밀한 관계성을 잃어버리면 심리적인 외로움에 젖어 들지만, 삶의 균형성을 잃어버리면 서로 비난하기 일쑤다.”라고 말한다.

(2025년 8월 쿠팡 추천도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가천홍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순화 고정희 박복연 박해옥 박 환 국주영 권경애 권양희 권여림 권영자 권용인 권혁자 권현재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기영 김기자 김다정 김도희 김두철 김매순 김명선 김명희 김문수
 김미라 김미숙 김미향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옥 김상화 김생수 김설아 김성국 김성희 김세환 김수연 김수일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철 김순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분 김옥선 김용배 김용선 김용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점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애 김정의 김정희 김중복 김중숙 김중옥 김중익 김중찬 김중희 김주봉 김주혁
 김주형 김지영 김춘화 김태균 김학자 김향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욱 김혜란 김화분 나정희 남궁영숙 남궁자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윤미 노정희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순 민병임 박갑출 박건섭 박금화 박금희 박난영 박노향 박덕남 박동호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상준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소원 박숙영 박순덕 박순배 박애자 박영민 박영호 박옥화
 박윤철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란 박정원 박종일 박주환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창범 박춘자 박필상 박 현 박형덕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방진선 배명순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배한솔 백광일 백준하 서경숙 서묘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석지찬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병서 손인규 손임순 손학균 손갑수 송근영 손미화 손수정 송영인 손정심 손창근 신건호 신경자
 신금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은수 신종길 심규향 안순연 안하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중 엄기홍 엄혜련 여경구 연소흙 연정화 엄은희 엄정원 오성남 오성애 오소연 오제영 오홍금 오홍수
 용애중 용영옥 우혜진 원병열 원선미 원예슬 원유미 원화숙 원희정 유 근 유나예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영재 유용균 유재란
 유점순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윤금숙 윤기춘 윤명숙 윤서경 윤성자 윤애자 윤영미 윤은미 윤정희 윤정희 윤학범 윤학묵 윤홍복
 이가현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동현 이명숙 이명순 이무식 이문희 이미숙 이미영 이병일 이병철 이병연 이선임
 이상도 이성숙 이소영 이숙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숙 이연화 이연희 이영규 이영순 이영윤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완래 이용숙
 이원일 이윤규 이윤주 이은경 이인숙 이재곤 이재선 이정미 이정옥 이종완 이종현 이주영 이지영 이지는 이진주 이창주 이천희
 이춘선 이충훈 이태우 이하경 이한수 이현석 이현아 이혜란 이혜옥 이호민 이희화 임덕수 임미화 임소희 임순희 임쌍용 임윤희
 임인숙 임재철 임청용 장경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준용 장기원 장진순 장창순 전수진 전운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금옥 정명옥 정복례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주향
 정지혜 정진호 정치웅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남진 조도산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영순 조영자 조원순 조은비 조정섭
 조정일 조종현 조진경 조현옥 주명호 주신자 지영필 지운용 지운성 지정훈 차유진 차재욱 차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민식
 최동규 최명기 최문수 최미정 최미혜 최민기 최민희 최선이 최선혜 최선희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원화 최영순
 최영희 최예샘 최옥순 최윤영 최은숙 최은순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중대 최종민 탁광희 피종호 하원자 하윤옥 한은희 한명수
 한성우 한순득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선 한희현 함서현 허순영 허 엽 허인영 허정자 현연희 현재용 홍기수 홍순복 홍영숙
 홍은숙 홍희표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은주 황정숙 황태흙 황변구

후원교회

갈릴리감리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신성감리교회 주의숲교회 춘천새누리교회 하늘기쁨교회
 강변제일성결교회 새춘천성결교회 아미교회 주찬양교회 춘천온누리교회 하늘평안교회
 강원침례교회 석사감리교회 암스트롱병원교회 주향교회 춘천우리교회 한빛교회
 거성침례교회 소양감리교회 엠마오교회 초대교회 춘천은평교회 한울섬김교회
 그말씀양문교회 소양성결교회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 축복교회 춘천은혜장로교회 화목교회
 나눔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예담장로교회 춘천광명장로교회 춘천일신교회 효신장로교회
 더좋은순복음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예사랑교회 춘천광영교회 춘천장로교회 효자감리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예수촌교회 춘천광장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후평제일교회
 밝은빛장로교회 순복음조은교회 옥산포침례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
 사랑의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우두감리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침례교회
 사암성결교회 섬이있는교회 임마누엘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평화교회
 산솔교회 신복교회 제자감리교회 춘천성광교회 평성성결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터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춘천와이신협 행복재가요양기관
 ▶ 명단(단체)이 누락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T.(033)256-1260 H.010-9698-2993 / 후원계좌번호: 신한 131-005-937566(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간 1998년 9월 15일 등록번호 춘천.바00012 발행인 이수형, 김훈 편집장 최상도, 이관형, 김훈

편집위원 이연희, 이영규, 김춘배, 정숙현, 김진술, 박익수 편집·발행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9 문의 (033) 256-1260 팩스 (033) 257-1260 메일 holycc1972@daum.net

성시 25년 9월/성경퍼즐퀴즈 : 가족들과 함께 맞춰보세요

참여방법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당첨자 5명에게 소정의 상품(상품권 1매)을 보내드립니다.

문자: (010-9698-2993)

1	2		1		3	
4					5	
	6			5		
				7		7
8	6					

* 가로 힌트

1.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려고 진친 곳은?
(삼상13장)
2. 시편 32편이 제목은 다윗의 무엇인가?(시32편)
3. 질그릇속에 담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은?
(고후4장)
4. 시105편에 나오는 하늘양식은 무엇인가?
(시105/민11장)
5. 자신의 포도주 틀에서 죽은 사람은?(삿7장)
6.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은?(사7장)
7. 큰자가 어린자르르 섬기는 아들을 둔 사람은?
(롬9장)
8. 죽었다가 베드로의 기도로 살아난 사람은?
(행9장)

* 세로 힌트

1. 마길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수17장)
2. 술람미 여자의 춤을 비유한 곳은?(아6장)
3. 성전 낭실앞에 세운 두기둥 중 좌편의 이름은?(왕상4장)
4. 마음이 분주한 사람은?(눅10장)
5. 어려서 말하기를 기다렸다 옴에게 말한 친구는?(욥32장)
6.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것중 언약의 물건은?
(히9장)
7. 하란을 통해 낳은 갈렙의 손자는?(대상2장)
8. 땅이 입을 열고 삼킨사람은?(시106/민16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도시의 모든 영역이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정, 교회, 교육, 정치, 경제, 과학기술, 예술, 미디어의 삶의 현장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만인 기도 만인 후원

만인 기도 만인 후원금은 춘천의 전 교회와 성도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소중히 쓰여집니다.

01 매일 기도해 주세요.

춘천의 성시화와 교회를 위하여,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02 정기 후원을 해 주세요.

후원계좌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본부